

2009년 12월 14일 보낸 편지입니다.(6,886조회)

어린왕자의 별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다
星の王子様の星にも、いい草と、悪い草がある

다른 모든 별들이 그렇듯,
他の総ての星と同じように

어린왕자의 별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들이 있다.
星の王子様の星にも、いい草と、悪い草がある。

그건 곧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다는 뜻이다.
これはまさに、いい種と悪い種があるという意味だ

그러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しかし、種は目に見えない。

씨앗은 땅 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種は土の中深い所で、寝っていてから

그 중 하나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その中の一つが、突然眠りから覚めるのだ。

그러면 그 씨앗은 먼저 기지개를 켜 다음
そうすれば、その種はまず、背伸びをしたあと

순하고 귀여운 어린 새싹 하나를
純粹で、かわいらしい幼い新芽一つを

태양을 향해 쏘옥 내민다.
太陽のほうに、突き出す。

- 생텍쥐페리의《어린왕자》중에서-
- サン=テグジュペリの<星の王子様>より -

* 내 안의 별에도
* 私の中の星にも

좋은 풀 나쁜 풀이 있습니다.
いい草と、悪い草があります。

많은 씨앗들이 내 안의 저 깊은 곳에 잠자고 있다가
たくさんの種が、私の中の深いとことに眠っていて

아름다운 풀잎으로, 꽃으로, 사랑으로 쏘옥 깨어납니다.
美しい葉で、花で、愛で、目覚めます。

그러나 더러는 그늘 아래 나쁜 풀로도 깨어나옵니다.
しかし、たまには影の下で悪い葉も目覚めます。

그때는 얼른 나쁜 쪽 싹을 살짝 잘라주거나
そのときは、すぐに悪いほうの芽をこっそり切ったり

자리를 조금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場所をちょっと動かしたりするのがいいです。

그늘에서 햇빛 비치는 양지 쪽으로.
影から日光の日向のほうに

미움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로.
憎しみの場所は、愛の場所に

절망은 희망으로.
絶望は、希望に

어린왕자
『星の王子さま』(ほしのおうじさま、フランス語原題: Le Petit Prince)
(直訳では『小さい大公』)

풀3

<1> [명사] 草。

<2> [명사] ‘갈풀’의 縮約形

기지개(를) 켜다

《관용구》伸びをする。

새-싹

<1> [명사] 新芽;若芽。

<2> [명사] 子供をたとえて言う語。

깨어-나다

<1> [자동사] (ねむり·夢·ねむけなどから)覚める。

<2> [자동사] (酒·薬品などに酔った状態から)正気にかえる;立ち直る;覚める。

더러1

<1> [부사] いくらか;多少;少しは;若干。

<2> [부사] たまに;ときどき;時おり。

그늘

<1> [명사] 日陰;陰。

<2> [명사] (社会的に)陽の当たらない場所;陰。

싹1

<1> [명사] 芽。

<2> [명사] ある現象の根源やはじまりをたとえて言う語:芽。

살짝

<1> [부사] (人が気づかぬように)すばやく;そっと;こっそり;ひそかに。

<2> [부사] たやすく;軽く;うまく;巧みに;さっと。

양지 [陽地]

[명사] 日光のあたる所;日なた。

アントワーヌ・ド・サン＝テグジュペリ(仏: Antoine de Saint-Exupéry, 1900年
6月29日 - 1944年7月31日)は、フランスの作家、操縦士。郵便輸送のため
のパイロットとして、欧州-南米間の飛行航路開拓などにも携わった。読者か
らは、サンテックスの愛称で親しまれる。

2009년 12월 15일 보낸 편지입니다.(2,039조회)

아픈 추억
痛い記憶

추억은
記憶は

꼭 좋은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必ずいいことでなければならない必要がない

아픈 것도 좋고 아쉬웠던 것도 좋다.
痛いこともよく、物足りなかったこともよい

나쁜 추억 역시 지나고 나면 오히려 아름답고 소중한게
悪い記憶は、さらに過ぎてみれば、むしろ美しく、大切なように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아픈 기억이라면 다시는 아프지
感じるられることも事実です。痛い記憶なら、二度と痛く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아쉬웠던 기억은 더욱 좋다.
ないようにすることもできる。物足りなかった記憶はさらによい。

그 아쉬움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을
その惜しさを満たすことができる、その何かを

만들어 낼 수 있으니 말이다.
作り出すことができるからだ。

- 김진애의《이 집은 누구인가》중에서 -
- キム・ジネの<この家は誰だろうか>より -

* 아픈 추억 한두 가지는
* 痛い記憶のひとつふたつは、

누구나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誰でも、胸に抱いて生きています。

그리고 그 아픈 추억을 있게 한 사람을
そしてその、痛い記憶をもって、ある人を

오래 기억하며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ずっと覚えておきながら、憎しみと恨みで生きていきやすいです。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때문에 자신의 내면이 훌쩍 자라고
しかし、ある瞬間そのために、自身の内面が一気に育って

단단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혼자서 미소를 짓게 됩니다.
硬くなっている姿を発見して、一人で微笑を浮かべるようになります。

과거의 아픈 추억은, 미래의 좋은 추억과 미소를
過去の痛い記憶は、未来のいい記憶と、微笑を

만들어내는 더없이 고마운 불쏘시개입니다.
作り出す何よりのありがたい、焚き付けです。

아쉽다

<1> {형용사·ㄴ 불규칙 활용} (必要な物がなくて足りなくて)欲しい;不便だ;不自由だ。

<2> {형용사·ㄴ 불규칙 활용} 不満だ;もの足りない;惜しい。

나오 [猶·尚]

<1>

1. [부사] 역시. 여전히. 아직. [동의어]やはりまだ.

2. [부사] 더욱. 한층. 오히려. [동의어]いっそう·更に.

채우다³

<1> [타동사] (いっぱい)満たす;詰める.

<2> [타동사] (欲望などを)満たす;充足させる;肥やす.

훔쩍¹

<1> [부사] 一息に飲みくだすさま:ぐいっと;ぐっと;つるっと;ぺろっと;ぺろりと.

<2> [부사] 身軽く素早いさま:さっと;ぱっと;ひらりと;ひょいと;びよんと.

단단-하다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堅固だ.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かたい;堅固である.

더-없이

[부사] この上なく;またとなく;何より.

불-쏘시개

[명사] 焚き付け;付け木;燃え種.

2009년 12월 16일 보낸 편지입니다.

희망의 무지개
希望の虹

무지개 하면
虹といえば、

떠오르는 일화가
よみがえるエピソードが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을 게다.
誰にでも一つくらいはあるだろう

만일 없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다.
もしなければ、それはかわいそうな人だ。

무지개를 처음 보았을 때의 흥분과 경이로움을
虹を初めてみた時の興奮と驚異を

기억한다면, 그의 가슴은 영원한 젊음을
覚えていれば、その胸は永遠な若さを

유지하리라.
維持するだろう。

- 최영미의《내가 사랑하는 시》중에서 -
- チェ・ヨンミの<私が愛する詩>より -

* 몽골 초원에서 본 쌍무지개,
* モンゴル草原から見た双子の虹

저 또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私も同じように、未だに忘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

젊은 시절, 절망의 계곡에서 몸도 마음도 안 아픈 곳이 없어
若い時節、絶望の連続で、体も心も痛くないところがなく

영영 울고 난 뒤에 뒹던 가슴 속 무지개도 생각납니다.
ワンワン泣いたあとに、浮かんだ胸の中の虹も思い出します。

비가 그쳐야 무지개는 뜹니다. 고통과 슬픔의
雨が上がってこそ、虹は浮かびます。苦痛と、悲しさの

먹구름이 지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뜹니다.
黒雲が過ぎた後に、ようやく浮かびます。

아직 먹구름이 가득한 당신의 하늘에도
まだ黒雲が、いっぱいあなたの空にも

이제 곧 무지개가 뜰 것입니다.
もうすぐ、虹が浮かぶでしょう。

떠-오르다

<1> {타동사·르 불규칙 활용} 浮き上がる;浮かび上がる;昇る。

20091216.txt

<2> {타동사·르 불규칙 활용} (考え·記憶などが)浮かぶ;よみがえる。

일화 [逸話]

[명사] 逸話;エピソード。

경이로움 驚異感

또한

<1> [부사] 同じように;同じく;また;やはり。

<2> [부사] 其上また;なおかつ;さらにまた。

먹-구름

[명사] 黒雲。

가득-하다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いっぱいだ;満ちている。

2009년 12월 17일 보낸 편지입니다.(1,068조회)-

입속의 도끼
口の中の斧

입속의 도끼를 버려라.
口の中の斧を捨てなさ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人はこの世に生まれるとき

입 안에 무서운 도끼를 물고 있다.
口の中に恐ろしい斧をくわえている

그리고 입 안의 그 무서운 도끼로 스스로의 몸을
そして、口の中のその恐ろしい斧で自らの体を

찍어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럽힌다. 그것은
打ち続けるだけでなく、世の中を汚す。それは、

오로지 입 안에서 뱉어져나오는
もっぱら口の中からはき出る

나쁜 말 때문이다.
悪口のためだ。

- 김의정의《마음에서 부는 바람》중에서 -
- キム・ウィジョンの<心から呼ぶ風>より -

* '법구비유경'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 '法句譬喩經'から引用した文章です。

도끼는 늘 시퍼렇게 날이 서 있어야 제격입니다.
斧はいつも、真っ青な刃が立っていてこそ、うってつけです。

그러나 그 시퍼런 도끼를 정말 잘 써야 합니다.
しかし、その真っ青な斧を本当によく使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잘 쓰면 예술이지만 잘못 쓰면 흉기가 됩니다.
よく使えば、芸術だが、間違って使えば凶器になります

입속의 혀는 도끼보다 더 무섭습니다.
口の中の舌は、斧よりさらに恐ろしいです。

잘 쓰면 복(福)이 되고 잘못 쓰면
よく使えば、福になって間違って使えば

화(禍)와 독(毒)이 됩니다.
災いと毒になります。

도;끼
[명사] 斧。
물다3

<1> [타동사] くわえる。
<2> [타동사] 噛みつく;食いつく。

대:다3

<보조동사> 動詞の語尾 ‘-아---어-’ に付いて, その動作の程度が激しく続きますを表わす:…(し)続ける;…(し)たてる;…(し)散らす;…(し)こける。

더:럽히다

<1> [타동사] 汚す;汚す;不潔にする。

<2> [타동사] (貞操を)奪う;犯す。

오:로지

[부사] ひとすら;もっぱら;一途に;ただ;ひとえに。

뿜다

<1> [타동사] 吹き出す;吹く;噴く;噴出する;吐く。

<2> [타동사] (水などを)吹きかける;霧を吹く。

시-퍼렇다

<1> {형용사·ㅎ 불규칙 활용} 真っ青だ。

<2> {형용사·ㅎ 불규칙 활용} (威勢などが)この上もない;ものすごい。

제-격 [一格]

[명사] 身分相応の格式;あつらえ向き;うってつけ。

흉기 [凶器·兇器]

[명사] 凶器;人を殺傷するために用いる器具, また殺傷に用いた器具。

법구비유경(法句譬喩經)

2009년 12월 18일 보낸 편지입니다.(5,772조회)

눈 오는 소리
雪の降る音

눈 소리를 느껴 본 적이 언제인가?
雪の音を感じてみたのはいつか?

눈 오는 것을 조용하게 묘사하지만,
雪がふることを静かに描くが

바로 그 조용한 점 때문에 눈 소리는 더욱 진귀하다.
まさにその雪が、静かなため雪の音はいっそう貴重です

눈 오는 소리를 '소복소복' 이라고 표현한 지혜는 참으로 놀랍다.
雪が揺る音を'ソボクソボク(日本語でこんもり)'という表現する知恵はとても驚く

소복소복은 물론 '쌓인다'는 '모습'을 표현하는 형용사임에도
ソボクソボクは、もちろん'つまれる'という'姿'を表現する形容詞にも

불구하고, 소복소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かわらず、ソボクソボクという言葉を受け

눈 오는 소리가 들릴 듯하다.
雪が降る音が聞こえるようだ

- 김진애의《이 집은 누구인가》중에서 -
- キム・ジネの<この家はだれだろうか>より -

* 눈은 본디 차가운 것인데
* 雪は本来冷たいものだが

눈 오는 소리는 왠지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雪が降る音は、なぜか温かく感じられます

아련해진 첫사랑의 추억이 생각나고, 뭔가 좋은 일이
おぼろげになった初恋の、記憶が思い出され、何かよいことが

있을 것도 같고, 끊겼던 소식이 다시 올 것만 같습니다.
あるようで、とぎれた消息がまた来るようです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하늘에서 비 대신에
だから、寒い冬には、空から雨の代わりに

눈을 내려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雪を降らせ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

창밖 눈 오는 소리에 가슴마저
窓の外の雪が降る音に心までも

포근하고 따스해집니다.
ぽかぽかと暖かくなります。

묘:사 [描寫]
[명사·하다형 타동사] 描写;描く。

진귀 [珍貴]

[명사·하다형 형용사] 珍貴;珍しく貴重であるさま。

소복-소복

[부사·하다형 형용사] こんもりと;うずたかく;むっちりと。

본디

<1> [명사] (ある物事の)始め;本来;元来;もともと。

<2> [명사] (副詞的に)始めから。

포근-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温度が)暖かい;ぽかぽか暖かい;風もなく暖かい。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服·布団などが)ふわふわしている;ふんわりしている;
;ふくよかだ;ふかふかしている。

아련-하다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考えや記憶などが)はっきりしない;おぼろげだ。

마저2

[조사] …もまた;…までも;…をも;…さえ;…すら。

2009년 12월 19일 보낸 편지입니다.(524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오보람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オ・ボラム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마음 놓고 살아본 적 있어요?”
”安心して、生きたことがありますか?”

“며칠,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걱정 없이,
”数日、いやたった1日でも心配なく

몸 안에 티끌만한 긴장도 없이, 정말로
体の中にほこりくらいの緊張もなく、本当に

마음 폭 놓고 지내본 적이 있냐구요!”
すっかり安心して、すごしてみたことがあるんですか!”

노는 동안에도 이 시간이 끝나면
休みの間にも、この時間が終われば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걱정에 더 치열하게 놀았다.
また仕事をし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心配に、さらに激烈に遊んだ

잠을 잘 때에도 내일 아침엔 말짱해져야 하기 때문에
寝るときにも、明日朝には、目が覚め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

비장하게 램 수면에 빠져 들었다.
悲壮なレム睡眠に陥った

‘마음 놓고 살아가기’ 너무나
’安心して生きてみる’とても

탐나는 물건 아닌가!
ほしい品物ではないだろうか!

- 곽세라의《인생에 대한 예의》중에서 -
- クワク・セウの〈人生についての礼儀〉より -

* ‘주말’이라는 달콤한 시간속에도
* ‘週末’という甘い時間の中にも

항상 월요일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느라
いつも月曜日を心配しながら、戦々恐々しながら

마음껏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心のそこまで楽しい時間を満喫できないようです。

늘 마음 졸이며 긴장하고 살았던 나의 몸과 마음,
いつも心配しながら、緊張して生きてきた私の体と心

주말, 휴식시간만이라도 우리 마음놓고
週末、休憩時間くらいは私たち安心して

조금 쉬었다 가면 어떨까요?
ちょっと休んでいけばどうでしょうか?

좋은 글 주셔서
よい文章をくださった

오늘 '독자가 쓰는 아침편지'에 선정되신
'読者が書く朝の手紙'に選定された

오보람님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オ・ボラムさまに感謝と祝賀の挨拶をいたします。

마음-놀다
[자동사][타동사] 安心する。

티끌
[명사] ごみ;ちり;ほこり;あくた。

푹

<1> [부사] すっぱり包みかぶせるさま:すっぱり。

<2> [부사] 熟睡するさま:ぐうすか;ぐっすり;ふかく。

노는 날 → 놀:다1

休日;休み

치열 [熾烈]

[명사·하다형 형용사] 熾烈;勢いが盛んで激しいこと。

말짱-하다1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損傷がない;欠点がない;完全だ。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意識などが)はっきりしている;覚めている。

비장 [悲壯]

[명사·하다형 형용사] 悲壯。

탐-나다 [貪-]

[자동사] (ある対象が気に入って)欲しくなる;欲しい;手に入れたくなる。

만:깍 [滿喫]

[명사·하다형 타동사] 滿喫。

<1> [명사·하다형 타동사] 十分に飲み食いすること。